

김영아 교수의 놀이로 脈 잡는 논술

15. 논술의 강자가 되자.

1. 단어와 문장의 치환

① 단어, 문장 치환

- * 논술에서 치환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 * 글을 쓰고 자가 첨삭을 할 때 읽어 내려가다 보면 무엇인가 목에 걸린 듯이 넘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 * 물 흐르듯이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그렇지 못하다면 걸리는 부분이 제대로 표현 되었다고 볼 수 없다.
- * 이럴 때 걸리는 부분을 잡아내어 다른 단어, 다른 문장으로 치환해 볼 수 있다.
- * 이렇게 문제를 파악하고 재빠르게 치환하는 능력이 논술쓰기에서 매끄러운 논술전개의 중요포인트다.

우리가 눈발이라면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서 쭈뼛쭈뼛 훑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세상이 바람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함박눈이 되어 내리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든 이의 창문가에서는
편지가 되고
그이의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돋는
새살이 되자.

- * 중학교 국어 시험에 “진눈깨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함박눈이 되어 내리자.”가 이 시의 다른 시어에 어떻게 치환됐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논리에 어긋나지 않고 의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언어치환을 잘하려면 다양한 문장 속에서 단어 바꾸기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② 다르게 생각하기

- * 갈치는 살아있을 때 □ 다. 라는 질문에 출연자 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 지를 발표하게 하는 스펀지라는 프로가 있다. 이 프로는 상당히 인기도 있었고 신선했다.
- * 이 답을 말하려면 나름대로 논리적 상상을 해야 하는데 고정관념이 있으면 새로운 발상을 하기가 쉽지 않다.
- * 고정관념에서 벗어난답시고 논리에 맞지 않은 답을 내 놓는 것도 문제다.
- * “몸이 길다.”라고 대답했다면 갈치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못 벗어난 것이고 “숨을 안 쉰다.”라고 했으면 비 논리적 답변이 된다.
- *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평소에 생각하기와 다르게 사고하되 논리적으로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 * 이 문제의 정답은 “곶꼴이 선다.”였다.

2. 논리 놀이, 치환하기

① 상상력과 논리의 결합

- * 상상과 논리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여긴다.
- * 존재하지 않는 것을 떠올리는 “상상”은 논리적 제약도 받지 않기에 비논리적이라고 여겨진다.
- * “논리”는 무미 건조한 사고로 여겨지고 한치의 오차가 생기면 안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 * 인류를 발전시켜온 힘: 상상과 논리의 결합
- * 아인슈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뉴턴의 상상: 이들의 상상이 위대한 것은 현실로 이끌어 낸 상상이기 때문이다.
- * 상상을 현실로 이끌어 낸 힘은 논리이다.

② 언어의 꽃, 비유하기

- * 아이들에게 비유란 쉽지 않음: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추론하지 못하면 이해가 힘들기 때문
- * 직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다 드러나 있는 비유법의 일종(형식: ~같이, ~처럼, ~인양, ~인듯)
- * 은유법: 직유법에서 다리 구실을 하는 연결어(~같이, ~처럼, ~인양, ~인듯)를 빼고 비유하는 방법(예: 내 마음은 호수요.)

혼자 있어봐

이화주

친구와
쌍동밤처럼
어깨동무하는 것도 좋지만,

참새 떼 처럼
찍째글 찍째글
몰려다니는 것도 좋지만,

가끔씩은
아주 가끔씩은
혼자 있어 봐.

별들의 이야기
옛들을 수도 있고,
입속말하던 시계들이
낭랑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 온단다.

그래, 운동장 가슴이 쿵쿵 울리도록
뛰놀던 아이들이 가버린
늦은 저녁
그네에 혼자 앉아
바람처럼 휘파람을 불어봐.

거인같은 운동장이
이웃집 아저씨처럼
너를 번쩍 안아 올려
네 마음의 무게를 재어 주실 테니까.

* 직유 표현: 쌍동밤 같은 친구, 참새 떼 처럼, 휘파람 같은 바람, 거인같은 운동장, 이웃집 아저씨처럼

* 은유 표현: 별들의 이야기, 입속말하던 시계, 낭랑한 목소리, 운동장 가슴, 네 마음의 무게

③ 치환 연습하기

㉠ 은유 표현 연습하기(단어치환)

* 내 마음은 호수요.

- 호수 대신 넣을 수 있는 단어 생각하기
- 서울은 _____다. 에서 빈칸에 넣을 수 있는 말 생각하기

㉡ 5줄 연습하기(문장치환)

* 서울은 살기 좋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서울이 살기 좋습니다.

<물건 이름 바꾸기>

① 학교 물건들의 이름을 다 다시 붙여 보게 함

- 이름 붙인 이유까지 설명하게 함
- 한 주 동안 그 물건을 그렇게 부르기로 약속함

<개사하기>

① 징글벨 노래에 맞춰 “미국 워싱턴, 영국의 런던, 프랑스 파리, 러시아 모스크바” 라고 부르며 수도를 외우게 함

- 같은 방법으로 아프리카 나라만을 가지고 2절을, 아시아 나라만을 가지고 3절을 만들어 보게 함

♠ 심화 학습

<복잡한 문제, 행렬로 풀기>

“수진, 영호, 윤재는 각각 하나의 애완동물을 좋아하고 다른 동물을 싫어한다. 영호는 강아지를 싫어한다. 윤재는 고양이를 좋아한다. 수진이는 햄스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 지문을 읽었을 때 누가 어떤 애완동물을 좋아하는지 한눈에 들어 오지 않지만 종이에 표를 만들면 간단해 짐

	수진	영호	윤재
강아지			
고양이			
햄스터			

* 이 표를 행렬이라 하고 주어진 단서를 찾아 칸을 채워 넣으면 복잡한 문제가 훨씬 일목요연해짐

	수진	영호	윤재
강아지	0	×	×
고양이	×	×	0
햄스터	×	0	×

* 행렬은 문제 해결 외에도 정보를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이를테면 연필과 샤프연필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간단한 것부터, 기업체가 여름철 음료수의 판매량을 분석하는 일, 초등생의 사교육 실태 등 복잡한 것도 가능하다. 행렬을 이용해 분석을 하다 보면 논리가 좀더 분명해 질 뿐만 아니라 창의적 사고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